

폴란드 사무소/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센터 주요 프로젝트 동향 보고 (6월 1주 ~ 6월 2주)

□ 정책 및 시장 동향

① 폴란드 경제 동향

○ 폴란드, 4월 실업률 EU 2위 최저 수준 기록(6.2)

- EU 통계청(Eurostat)에 따르면, 폴란드의 2026년 4월 실업률은 3.0%로 집계되어 EU 27개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
- EU 내 최저 실업률 국가는 불가리아(2.8%)였으며, 체코는 3.1%로 폴란드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실업률을 기록
- 반면 핀란드는 10.6%로 EU 최고 수준의 실업률을 나타냈으며, 스페인도 10.3%로 높은 실업률을 기록
- EU 전체 평균 실업률은 6.0%로, 전월(3월) 및 전년 동월(2025년 4월) 대비 변동 없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
- 한편 폴 통계청(GUS)은 별도 산정 방식에 따라 2026년 4월 실업률을 6.0%로 발표했으며, 이는 3월 대비 0.1%p 하락한 수준

○ 폴란드 중앙은행, 기준금리 3.75%로 동결(6.2)

- 폴란드 중앙은행(NBP) 통화정책위원회(MPC)는 6월 2일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3.75%로 유지하기로 결정
- 이에 따라 롬바르드 금리(Lombard Rate)는 4.00%, 예치금리(Deposit Rate)는 3.25%로 각각 동결
- 통화정책위원회는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를 반영해 지난 3월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한 바 있으며, 2025년에는 총 6차례에 걸쳐 누적 1.75%p 금리 인하를 단행
- 폴란드 통계청(GUS)의 잠정치에 따르면 2026년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3.1%로, 4월(3.2%) 대비 소폭 하락
- 정부는 2026년 예산안에서 연평균 물가상승률을 3.0% 수준으로 전망, 물가 안정세가 점진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 중앙은행은 3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연평균 물가상승률이 2026년 2.3%, 2027년 2.4%, 2028년 2.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② 우크라이나 경제 동향

- **우크라, 신규 증권거래소 설립 추진 및 해외 투자자 유치 계획(6.8)**
 - 우크라이나는 자본시장 인프라 현대화 및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규 증권거래소 설립을 추진하고, 이를 주도할 해외 전략투자자 유치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발표
 -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가 참여하는 지주회사(Holding Company)를 설립해 증권거래, 청산(Clearing), 증권예탁 및 보관 등 자본시장 핵심 인프라를 통합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
 - 해당 구조를 통해 “거래소 내 증권 매매 체결부터 결제 및 소유권 기록 관리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완전한 증권거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
 - 전략투자자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될 예정이며, 국가 지분은 최소 25% 이상 유지해 공공 통제권을 확보할 방침
 - 정부는 관련 법안 제정을 통해 「우크라이나 중앙은행법」, 「국유 재산 관리법」, 「자본시장 및 조직화된 상품시장법」, 「우크라이나 예탁결제제도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할 계획
 -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의 IMF EFF 프로그램 이행 의무와도 연계, 전후 복구 및 국제자본 유치 기반 마련을 위한 핵심 금융개혁 과제로 평가됨
- **우 연간 물가상승률 8.2%로 둔화, 인플레이션 안정세 지속(6.9)**
 - 우크라이나 5월 연간 물가상승률이 전월(8.6%) 대비 8.2%로 둔화되며 인플레이션 안정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식품·음료 가격 상승은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일부 상쇄되었으나, 운송요금과 연료비가 올라 서비스 물가 상승 압력은 지속 중임
- **우크라이나 중앙은행(NBU)은 기준금리를 15%로 발표하고, 올해 초 금리를 한 차례 인하(0.5%p) 인하한바 있음**

③ 폴란드 인프라 및 외교 동향

○ ORLEN, 푸오츠크 HVO 바이오연료 설비 가동 개시(5.26)

- ORLEN이 Płock에 연간 약 30만 톤 규모의 수소화식물성오일(HVO) 생산설비를 준공·가동 개시
- 신규 설비 운영으로 ORLEN의 전체 바이오연료 생산능력은 연간 약 70만 톤으로 확대, 2030년까지 110만 톤 확보를 목표로 추진
- 이번 투자 규모는 약 8억 즈위티로, 국내 연료 생산용 바이오컴포넌트 공급 확대 및 에너지 전환 대응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 생산물량은 주로 폴란드 내수시장에 공급 예정
- 신규 설비는 카놀라유(rapeseed oil)와 폐식용유(UCO) 등을 원료로 활용해 도로교통용 바이오연료를 생산
- ORLEN은 푸오츠크 내 기존 디젤 탈황설비 2기를 식물성 원료 공동수첨(co-hydrogenation) 방식으로 개조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바이오 원료 처리능력을 연간 10만 톤 이상 추가 확대 예정

○ PERN, Bydgoszcz 인근 신규 철도 연료터미널 가동 개시(5.25)

- 폴란드 국영 연료 인프라 운영사 PERN이 비드고슈치 인근 노바 비에시 비엘카(Nowa Wieś Wielka) 소재 연료기지에 신규 철도 연료터미널을 준공 및 가동
- 신규 터미널은 최대 36량 규모 철도 유조차량을 동시에 하역할 수 있도록 설계, 총 42개 하역장에 각각 3개의 독립 연료 연결라인을 구축해 디젤·휘발유 등 다양한 연료 처리 가능
- 사업에는 약 3.5km 규모 신규 철도 선로 건설도 포함됐으며, 전체 열차 편성 단위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차량 회전을 개선 및 전국 연료 재분배 물량 확대 기대
- 해당 기지는 Port of Gdańsk 및 Dębogórze 연료허브 등에서 수입 연료를 공급받아 파이프라인·철도망을 통해 전국으로 운송하는 폴란드 핵심 연료 물류거점 역할 수행
- 또한 신규 설비는 향후 HVO(수소화식물성오일) 바이오연료 등

차세대 연료 제품 처리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설계됐으며, 유연·복원력 중심의 장기 연료 물류 전략과 연계 추진 예정

○ PGE, Baltica 9 해상풍력 프로젝트 전략적 파트너 선정 추진(5.27)

- 폴 국영 전력기업 PGE는 Baltica 9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전략적 파트너 선정 절차를 수주 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며, 산업 투자자 유치를 목표로 협상 진행 중
- PGE는 2026년 1분기 독일 에너지기업 RWE로부터 350MW 규모 FEW Baltic II 프로젝트를 인수했으며, 기존 Baltica 9와 통합해 'Baltica 9+' 프로젝트로 개발 추진
- 회사는 덴마크 해상풍력 기업 Ørsted와 공동 추진 중인 Baltica 3 프로젝트의 구조 재편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주요 기자재 조달 절차 착수 준비 진행 중
- PGE는 향후 Baltica 3 및 Baltica 9+ 프로젝트에서 자사의 사업 참여 비중을 기존 Baltica 2 대비 확대할 방침이며, 현지 공급망(Local Content) 활용 비율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
- 현재 Baltica 2 프로젝트는 2026년 5월부터 해상 기초 구조물 설치 단계에 돌입했으며, 총 111기 중 20기 이상 설치 완료

○ PreZero, Włocławek 폐기물 에너지화(WtE) 프로젝트 착공(5.26)

- 독일계 폐기물 에너지화 기업 PreZero는 폴란드 브워츠와베크(Włocławek) 내 생활폐기물 처리 및 열병합발전 시설 건설에 착수했으며, 최근 기초공사 완료
- '브워츠와베크 에너지센터(Włocławek Energy Centre)'로 명명된 해당 프로젝트는 연간 9만 톤 규모 생활폐기물을 처리해 약 65만 GJ의 지역난방 열과 45,000MWh 전력을 생산하는 사업
- 생산된 열은 2028년 중반부터 약 10만 명 규모 브워츠와베크 시민의 난방 수요를 100% 공급할 예정이며, 전력은 학교·병원·도시 인프라 운영 등에 활용 계획
- 프로젝트는 오스트리아 건설기업 Porr 계열 Porr SA와 이탈리아

환경플랜트 기업 Thermomeccanica Ecologia 컨소시엄이 공동 수행

○ **CPK, 철도 'Y' 노선 전력공급 위해 PSE와 전력망 연결 계약 체결(5.28)**

- CPK는 신공항 'Port Polska'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폴란드 송전망 운영사 PSE와 우치(Łódź)-브로츠와프(Wrocław) 구간 고속철도 전력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
- 이번 계약은 바르샤바-우치-시에라츠-포즈난-브로츠와프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Y' 노선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견인변전소와 국가 송전망 간 연결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 조건을 규정
- 우치-브로츠와프 구간에는 Pabianice, Kuźnica-Czajków, Dziadowa Kłoda 지역에 견인변전소가 설치될 예정이며, 기존 및 신규 220/110kV·400kV 변전소를 통해 전력을 공급받게 됨
- 신규 고속철 노선에는 2x25kV AC 표준이 적용되며, 기존 일반철도와 연결되는 구간에는 3kV DC 전력 시스템도 병행 운영될 예정
- PSE는 국가 송전망과 견인변전소를 연결하는 전력 인프라를 구축하고, CPK는 Port Polska 사업의 일환으로 변전소 건설을 담당할 계획
- 사업 일정에 따르면 바르샤바-우치 및 신공항 연결 구간은 2032년 개통 예정이며, 2035년에는 포즈난·브로츠와프까지 'Y' 노선 전체가 연결될 전망
- 한편 신공항은 바르샤바와 우치 사이 Baranów·Wiskitki·Teresin 지역에 건설될 예정으로, 2026년 착공 후 2032년 운영 개시를 목표로 추진 중

○ **Orlen, Włocławek SMR 사업 협력조건 재조정 협상 진행(5.28)**

- Orlen CEO Fafara는 소형모듈원자로(SMR)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파트너사와 특수목적법인(SPV) 운영 및 협력 조건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발표
- 2월 Orlen Synthos Green Energy와 GE Vernova Hitachi Nuclear Energy는 BWRX-300 기반 폴란드 표준 원자로 설계 개발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폴란드 SMR 도입의 공식 추진 단계로 평가됨

- 첫 번째 SMR 건설 후보지는 브워츠와베크 인근 Anwil 화학단지 지역으로 선정, 상업 운전 개시는 2030년대 초반을 목표로 추진
- Orlen과 Synthos는 합작사 Orlen Synthos Green Energy를 통해 SMR 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있으며, 양측이 각각 50% 지분을 보유
- 다만 Fafara CEO는 “Orlen의 초기 투자 규모 대비 지배력과 지분 구조가 적절하지 않았다”며, 자금 기여 대비 의사결정 권한 불균형 문제를 제기
- 협상 과정에서 대부분의 목표를 달성했지만, 현재 계약상 BWRX-300 기술에만 독점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제한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설명
- Orlen은 향후 시장 상황 변화와 신규 원자로 기술 등장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 선택의 유연성을 확보하길 원하고 있으나, 해당 사안에 대해 파트너 측과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

○ **GDDKiA-Mostostal Warszawa 간 S19 분쟁 확대…하도급사 직접지급 청구 제기(5.28)**

- 폴란드 고속도로(S19) 사업에서 시공사(Mostostal)가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며 계약 철회를 주장하자, 발주처(GDDKiA)는 공정률 미달(13%)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갈등이 심화됨
- 원도급사와 발주처 간의 계약 종료 분쟁 속에서, 공식 하도급업체들이 발주처에 총 130만 즈워티 이상의 미지급 대금 직접지급을 청구하여 관련 법적·행정 절차가 진행 중임

○ **PGE Energia Odnawialna, 풍력·태양광 설비 서비스센터 건설 착수(5.29)**

- PGE Energia Odnawialna가 폴란드 Płoty에 풍력터빈 및 태양광 설비 전용 서비스센터 건설을 시작했다고 발표
- 신규 센터에는 예비부품 창고, 서비스·조립 홀, 사무공간 및 교육 시설 등이 포함될 예정이며, 재생에너지 설비 운영·유지보수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함
- 동 프로젝트의 시공은 폴란드 기업 WPIP Construction이 담당하며, 2027년 1분기 준공 목표로 추진 중

- PGE Energia Odnawialna는 현재 폴란드 전역에서 총 359기의 풍력 터빈(설비용량 832MW)을 운영 중이며, 이번 투자로 재생에너지 설비 유지보수 및 운영 효율성 강화가 기대됨

○ Veolia, Łódź 열병합발전소 바이오매스 전환 투자 추진(5.29)

- Veolia Energia Polska가 우치(Łódź) 소재 CHP Plant 3의 OP-230 9호 보일러를 바이오매스 연료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한 개보수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Remak-Energomontaż를 선정
- 선정된 사업 규모는 총 215.4백만 즈워티이며, 기존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하고 바이오매스 기반 열생산 확대를 목표로 함
- 이번 프로젝트는 폴란드 에너지 전환 정책과 지역 난방 부문의 탈석탄화 기조에 부합하는 투자로 평가되며, 우치 지역의 친환경 열공급 확대에 기여할 전망
- 다만 Remak-Energomontaż는 2026년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4,020만→1,560만 즈워티)했으며, 영업손실 1,060만 즈워티 및 순손실 850만 즈워티를 기록하는 등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
- 회사 측은 철강 등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및 하도급 비용 증가, 숙련 인력 부족, 장기 프로젝트 계약조건 조정 지연 등이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
- Remak-Energomontaż는 폴란드 산업그룹 Zarmen 산하 계열사로, 이번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통해 향후 실적 회복 여부가 주목됨

○ 크라쿠프 공항, 신규 사무·행정동 설계 계약 체결 및 터미널 확장 연계 개발 추진(6.1)

- 폴 Kraków Airport는 2026년 6월 1일 신규 공항 사무·행정동 설계 계약을 체결, 약 2029년 완공 목표로 추진되며, 공항 직원 사무공간 외 항공교육센터 본부 및 경찰 파견소 등 복합 기능을 포함
- 설계는 약 9,500m² 규모로 기존 계획(5,500m²) 대비 확대, 제한된 공항 부지 내 공간 효율성과 향후 확장성을 고려한 복합형 인프라로 설계됨
- 공항 운영사 Łukasz Strutyński는 공항 이용객 증가(연 13백만→15백만 명

예상)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 인프라 확충 전략의 일환이라고 설명

○ 폴, 풍력 발전소 현대화(리파워링) 규제 완화 및 가속화 추진(6.2)

- 폴란드 기후환경부가 육상 풍력 발전소의 현대화(Repowering) 및 설비 교체 주기를 대폭 단축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 중임
- 기존에 승인된 풍력 발전 부지를 재활용하여 구형 터빈을 고효율 최신 장비로 교체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및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축하는 '신속 승인 경로(Fast-track)'를 도입할 계획임
- 이번 조치는 신규 부지 확보에 따른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국가 전체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가장 빠르게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임

○ 폴, LNG 터미널 연계 전력망 구축에 44백만 유로 투입(6.2)

- 폴란드 국영 전력망 운영사(PSE)가 가스 수입 다변화의 핵심인 Świnoujście LNG 터미널 및 가스 발전소들과 연계된 북부 지역 전력망 확충 프로젝트에 44백만 유로 투자 계획을 확정했음
- 해당 자금은 고압 송전선로 건설, 변전소 신설 및 기존 계통 부하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에 전액 투입될 예정임
- 수입된 가스를 기반으로 생산된 전력을 내륙의 주요 산업 단지로 손실 없이 안정적으로 수송하고, 북부 해안 지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 목적임

○ 히타치 에너지, 폴란드 공장 증설 및 제조 역량 확대(6.2)

- 글로벌 전력 기술 기업 히타치 에너지(Hitachi Energy)가 폴란드 Łódź와 Przasnysz 등에 위치한 기존 제조 공장의 대규모 증설 투자를 발표했다
- 유럽 전역의 에너지 전환 기조에 따라 전력망 현대화 기기 및 친환경 변압기, 고전압 차단기 등의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선제적인 생산 라인 확장을 결정했음
- 이번 인프라 확장을 통해 폴란드 현지 고용 창출 효과는 물론,

유럽 시장 내 핵심 전력 기자재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폴 Grupa Azoty 노조, 노사합의 이행 차질 우려 제기(6.3)

- 폴란드 화학기업 Grupa Azoty 산하 Grupa Azoty Zakłady Chemiczne Police 노동조합은 지난 1월 체결된 노사합의 이행이 경영진 교체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
- 2026년 1월 30일 체결된 합의에는 ▲근속수당 도입 ▲보너스 지급 중단 ▲직무평가 체계 및 신규 임금체계 도입 등이 포함되었으며, 임금체계 합리화와 장기근속자 처우 개선이 목적
- 노조 측은 합의서에 서명한 경영진이 해임되거나 사임했으며, 잔류 경영진이 기존 합의를 파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 표명
- 또한 신규 경영진 선임 절차가 지연되면서 직원들과의 약속 이행이 불확실해지고 있다고 지적
- 6개 노조는 회사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단체 분쟁 절차 착수 등 강경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
- 이번 사안은 경영진 교체 과정에서 노사관계 불안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임금체계 개편 및 인력관리 정책 추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존재

○ Grupa Azoty, 주요 채권단과 장기 부채 구조조정 합의서 체결(6.2)

- Grupa Azoty가 PKO BP, BGK, ING, EIB, EBRD 등 11개 주요 채권 금융기관과 장기 부채 구조조정의 핵심 가조건에 합의하는 주요조건 합의서(Term Sheet)를 전격 체결했음
- 이번 합의는 유동성 위기를 완화하고 다개년 재정 회복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최종 계약의 직전 단계임
- 부채 상환 스케줄 조정: 구조조정 대상 부채 총액 중 25%는 2030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분할 상환하고, 나머지 75%는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되 회사는 2029년 6월 30일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리파이낸싱 이행 계획을 채권단에 제출해야 함. 단 단기 현금 흐름 부담 완화를

위해 2027년 6월 30일까지 약 1년간 원금 청구를 유예(Grace Period)받기로 합의했음

- 리스크 통제 및 담보 조건: 회사의 영업 실적 개선으로 기준 이상의 초과 현금 흐름이 발생할 경우 이를 부채 조기 상환에 우선 투입하는 '캐시 스위프(Cash Sweep)' 조항이 도입되었으며, 이행 보증을 위해 산하 주요 자회사의 핵심 자산들이 채권단에 담보로 제공됨
- 자본 확충 및 경영 의무: 지난 3월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오는 2026년 7월 31일까지 계획된 신주 발행(유상증자)을 완료하여 신규 자본을 조달해야 하며, 향후 추진될 사업 재편 및 핵심 투자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채권단에 정기적으로 투명하게 보고할 의무를 가짐
- 향후 절차: 본 텀시트의 조건을 바탕으로 아조티 산하 주요 계열사(폴리체, 푸와비 등)의 이사회 승인 및 각 금융기관 크레딧 위원회의 최종 조율을 거쳐 조만간 장기 금융 계약 체결이 완료될 예정임

○ Collins Aerospace, 폴 Tajęcina 착륙장치 생산시설 증설 완료(6.3)

- 미 항공우주기업 Collins Aerospace가 폴란드 Tajęcina 소재 착륙장치(Landing Gear) 생산시설 확장 공사를 완료하고 공식 개소, 총 69백만 달러 투자 집행
- 시설 면적은 기존 대비 확대된 22,000m² 규모로 운영되며, 상업용 및 방산 항공기용 착륙장치 시스템 생산능력이 약 25% 증가할 전망
- 증설에 따라 2026년 중 약 19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으로, 지역 항공우주 제조 생태계 및 고용 기반 강화 기대
- Tajęcina 공장과 인근 Krosno 공장은 주착륙장치(Main Landing Gear), 전방착륙장치(Nose Landing Gear), 날개착륙장치(Wing Landing Gear) 등 다양한 항공기 착륙장치의 생산 및 정비를 담당
- 모기업 RTX는 폴란드를 미국 외 최대 해외 투자·고용 거점으로 육성 중이며, 현재 Collins Aerospace, Pratt & Whitney, Raytheon 사업부를 통해 9,400명 이상을 고용
- RTX는 올해 초 Rzeszów 엔진부품 생산시설에 1억 달러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 해당 프로젝트는 GTFTM, F135, F100 엔진용 핵심 부품

생산 확대를 통해 2028년까지 생산능력을 약 30% 증대하는 것을 목표

- 이번 증설은 글로벌 항공·방산 공급망 내 폴란드의 전략적 중요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평가됨

○ R.Power, 폴 최대 규모 BESS 프로젝트 금융 조달 성공(6.4)

- 유럽 독립발전사업자 R.Power가 Jedwabno 지역에 폴란드 유틸리티급 최대 규모인 150MW/300MWh 배터리저장장치 건설을 위해 약 270백만 즈워티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조달에 성공
- 지멘스 뱅크와 에르스테 그룹 뱅크가 공동 금융을 제공했으며, 전력 용량시장 17년 장기 계약 및 Axpo와의 운영 계약을 기반으로 안정적 수익성을 인정받아 20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건설 중임

○ Panattoni, Bytom 지역 첫 산업단지 개발 착수(6.5)

- 산업용 부동산 개발사 Panattoni가 실레지아주 비툼(Bytom)에서 첫 투자 프로젝트인 'Panattoni Park Bytom' 개발을 공식 발표
- 동 프로젝트는 총 132,000m² 이상의 산업·물류 공간을 공급할 예정, 이 중 약 10만m²(전체의 75% 이상)는 타이어 유통업체 Latex Opony가 선임차 계약 체결
- Latex Opony는 2027년 3월 시설 조기 인도를 받아 단계적으로 운영을 시작하고, 2027년 5월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

○ 폴란드 정부, 군과 에너지 인프라 개발의 공존 추진(6.8)

- 폴 국방부는 에너지 안보를 국가안보의 핵심 요소로 규정하고, 군이 풍력발전 등 에너지 독립을 위한 인프라 개발을 저해하지 않고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힘
- 정부는 특히 Western Pomerania 지역을 중심으로 육상풍력 발전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며, 군사시설 및 항공 운용 요건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추진을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 폴란드, 중·동유럽 데이터센터 핵심 시장으로 부상(6.9)

- 클라우드 컴퓨팅과 AI 수요 확대에 힘입어 폴란드는 중·동유럽 데이터센터 용량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장 규모는

현재 약 300MW에서 2030년 500MW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

- 특히 바르샤바가 역내 주요 데이터센터 허브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서유럽 주요 시장의 전력·부지 부족에 따라 폴란드가 대규모 AI 및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음

4 우크라이나 정부외교 및 정책

○ EIB, 47억 유로 규모 우 재건·인프라 지원 사업 포트폴리오 운영(5.26)

- 유럽투자은행(EIB)은 현재 우크라이나 내 총 27개 프로젝트, 약 47억 유로 규모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운영 중이며, 에너지·교통·사회 인프라 복구를 중심으로 지원 확대 추진
- 2025년에는 공공·민간 부문에 총 15억 유로를 배정, 에너지 시스템 복구, 학교·병원 재건, 교통 인프라 현대화 사업 등에 중점 투자
- 2026년에는 에너지 및 교통 부문을 우선 협력 분야로 선정, 러시아 공습으로 피해를 입은 연료·에너지 인프라와 Ukrzaliznytsia(우 철도 공사) 시설 복구를 핵심 과제로 추진 예정
- 향후 2년간 Ukraine Facility 하에서 추진 예정인 우선 프로젝트 규모는 총 6억 유로 수준으로 집계
- 6월 말 그단스크에서 개최하는 Ukraine Recovery Conference 기간 중 주요 재건 프로젝트 협약 체결이 예정
- 사회주택 재건 사업에 1억 유로, 도로 및 국경 검문소 개선 사업 (Solidarity Roads)에는 96백만 유로 차관이 제공
- 이 외에도 교량·입체교차로 건설 등 고속도로 연결 체계 개선 사업 (Transport Connection)에 50백만 유로 규모 차관이 제공될 예정

○ Berdychiv Wind Park, 57MW 규모 풍력발전단지 개발 추진(5.26)

- 우크라이나 지토미르(Zhytomyr) 지역에서 'Berdychiv Wind Park'사가 주도하는 총 57MW 규모 풍력발전단지 건설 프로젝트가 추진 중
- 사업은 총 10기의 풍력터빈 설치를 포함하며, 터빈당 발전용량은 4.5~8MW 수준으로 계획.

- 발전단지의 연간 예상 전력생산량은 약 14만~18만MWh 수준으로 전망되며, 우크라이나 중부지역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및 전력망 안정화에 기여 기대
 - 풍력터빈은 타워 높이 120~180m, 최대 로터 직경 180m 규모로 설계될 예정이며, 생산 전력은 흐리시코베츠(Hryshkovets) 지역 35/110kV 변전소로 연결되는 35kV 케이블망을 통해 송전 계획
 - 전체 사업 부지 면적은 약 16.3헥타르 규모로, 프로젝트 시행사 Berdychiv Wind Park는 2024년 6월 지토미르州 베르디치우 (Berdychiv) 지역 폴로베츠크(Polovetske)에 위치
- Dragon Capital·Amber Infrastructure, 우크라 재건 투자재원 13억 유로 규모로 확대 추진(5.26)
- 우크라 투자회사 Dragon Capital이 우크라 재건 관련 3개 펀드를 통해 총 6억 유로 규모 자금을 조성했으며, 2027년 말까지 전체 운용 규모를 13억 유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
 - 현재 운용되는 주요 펀드는 ▲REBUF(Rebuild Ukraine Fund) 102.5백만 달러 ▲Amber Dragon Ukraine Infrastructure Fund I 200백만 유로 ▲Amber Dragon European Fund for Ukraine 260백만 유로 규모로 구성, 이 중 40백만 유로는 Dragon Capital이 직접 출자
 - 핵심 재건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Amber Dragon European Fund for Ukraine’는 최종적으로 10억 유로 규모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며, 기존 REBUF 및 Amber Dragon Ukraine Infrastructure Fund I의 목표 규모는 각각 250백만 달러 및 350백만 유로로 설정
 - 전체 조성 자금의 약 65%는 인프라 분야에 배정될 예정, 이 중 약 70%는 신규 생산설비·인프라를 처음부터 구축하는 그린필드 프로젝트에 투자 계획
 - 양사는 이미 우크라이나 경제 내 투자 집행을 개시했으며, 이번 펀드 확대는 우크라 재건 과정에서 민간 투자자본 유입 확대 및 장기 인프라 개발 촉진 전략과 연계된 것으로 평가됨
- 폴 전자상거래 기업 Allegro, 우크라이나 시장 진출 추진(5.27)

- 폴란드 최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인 Allegro는 6월 중 우크라 시장 진출을 추진 중이며, 초기 단계에서는 폴란드 판매자의 상품을 우크라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배송 서비스 제공 예정
 - 향후 우크라 판매자도 입점 가능한 별도 플랫폼 'Allegro.ua' 출범 가능성도 검토 중으로, 해당 사업은 2027년 추진 가능성 제기
 - 물류 부문에서는 우크라 물류기업 Nova Post와의 협력이 유력하게 거론중이며, 과거 해외시장 진출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반영해 안정적 운영 기반 확보에 주력하는 모습
 - 한편, 폴란드 유통기업 Pepco도 2026년 가을 우크라이나 내 시험 매장 오픈을 계획 중이며, 대형 쇼핑몰 및 리테일파크 입점을 우선 검토
 - Pepco는 시범사업 성과, 수익성 및 현지 안보 상황 등을 고려해 향후 확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동유럽 지역 기준 점포당 투자비용은 약 17만 5천 유로 수준으로 추산됨
- **우 부동산 시장, 2026년 1분기 주택가격 17% 이상 상승(5.27)**
- 우크라 국가통계청에 따르면, 2026년 1~3월 주택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7.2% 상승,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 11.2% 대비 상승세 확대
 - 1차(신축) 시장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17.3%로 집계됐으며, 아파트 가격은 17.3%, 단독주택은 16.4% 상승하는 등 신규 주거 부문의 가격 오름세 지속
 - 2차(기존) 시장에서는 가격 상승률이 17.1%로 나타나 지난해 동기 9.3% 대비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으며, 아파트 가격은 17.9%, 주택 가격은 15.4% 상승
 - 전분기 대비 전체 주택가격은 6.1% 상승, 신축시장 4.8%, 기존 주택 시장 6.6% 각각 상승하는 등 가격 상승세 지속 확인
 - 세부적으로는 신축 아파트 가격이 전분기 대비 4.2%, 신축 주택은 7.5% 상승했으며, 기존 아파트와 기존 주택 가격도 각각 5.9%, 7.8% 상승
 - 우크라 주택시장은 전시 상황에도 안전지역 중심 수요 집중 등의

영향으로 가격 상승 압력이 지속, 통계청 기준 연간 주택가격 상승률은 2024년 12.7%, 2025년 12.8% 기록

○ Kyivstar, 리비우 지역 태양광 발전소 6곳 인수(5.28)

- 우크라 최대 이동통신사 Kyivstar는 리비우(Lviv) 지역 소재 태양광 발전소 6곳을 약 36억 흐리우냐에 인수했다고 발표
- 이번에 확보한 발전소의 총 설비용량은 105MW 규모로, 지난해 12월에도 지토미르(Zhytomyr) 지역 소재 13MW 규모 Sanvin 11 태양광발전소를 약 3백만 달러에 인수한 바 있음
- 이번 거래를 포함해 Kyivstar의 총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은 118MW로 확대됐으며, 이는 회사 연간 전력소비량의 약 30%를 충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
- Kyivstar는 향후에도 유사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 투자와 친환경 전력 활용 확대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 우, 스웨덴 보증 기반 2.36억 유로 규모 세계은행 차관 확보(5.29)

- 우크라이나 재무부와 World Bank가 스웨덴 정부 보증을 기반으로 한 236백만 유로 규모 차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
- 해당 자금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을 통해 우 재건 거버넌스를 위한 공공지출 지원 프로젝트(PEACE in Ukraine) 명목으로 조달 됐으며, 우크라이나 국가예산 일반기금으로 편입 예정
- 확보된 재원은 취약계층 대상 사회보장 지출 및 공공기관 운영비 등 핵심 사회지출 보전에 활용될 계획이며, 정부의 안정적 사회서비스 제공 지속을 지원할 전망
- PEACE in Ukraine 프로젝트는 러와의 전쟁 이후 시행 중인 국제 재정지원 프로그램으로, 이번 차관 포함 누적 조달 규모는 약 535억 달러에 달함

○ Orlen, 우 최대 석유기업 Ukrnafta 지분 인수 협상 착수(6.1)

- Orlen은 우크라이나 시장 영향력 확대를 위해 Ukrnafta 지분 인수를 검토 중이며, 현재 우크라이나 측과 관련 협상을 진행 중

- 연간 150만 톤의 석유제품을 우크라에 공급 중인 Orlen은 이번 투자를 통해 향후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장 및 공급망 내 입지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 헝가리, EU 우크라 군사 지원 보상금 지급 거부권 철회(6.2)
 - 헝가리 신정부가 약 2년간 유지해온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보상금 지급 거부권을 철회하며 EU의 자금 집행이 재개될 전망
 - 대상은 회원국의 대우크라 군사지원 비용 일부를 보전하는 유럽평화 기구(EPF)로, 지원 비용의 약 40%를 공동기금으로 보상하는 제도
 - 기존 헝가리의 반대로 400억 유로 규모의 보상금 지급이 지연됐으며, 우선 약 66억 유로가 집행될 예정
 - 이번 결정은 신임 페테르 마자르 정부의 친EU·친NATO 기조 전환의 일환으로 평가되며, 우크라이나 지원 및 EU 협력 정상화에 긍정적 신호로 해석
- EU, 우크라이나 지원 대출 1차분 91억 유로 집행 연기(6.2)
 - EU 집행위원회(EC)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승인된 900억 유로 규모 대출 프로그램의 1차 집행분 91억 유로 지급을 연기
 - 지급 지연은 우크라이나 측의 행정·제도적 요건 미충족에 따른 것으로, 관련 절차 완료 후 집행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
 - 1차 지원금은 군사 지원 59억 유로(드론 등 장비 조달)와 예산 지원 32억 유로로 구성
 - EU는 군사 지원 자금의 경우 유럽 내 제조업체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예외적 경우에만 제3국 조달을 허용
 - 이번 사례는 대규모 우크라이나 지원이 실제 집행 단계에서 제도적·정치적 조율 과정을 거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됨
- 세계 최대 선사 MSC, 우크라 피브덴니 항구 TIS 터미널 지분 인수(6.2)
 - 글로벌 1위 컨테이너 해운사인 MSC가 우크라 최대 해상 물류 허브 중 하나인 피브덴니(Pivdennyi) 항구 내 'TIS 컨테이너 터미널'의 주요 지분을 전격 인수했음

- 전시 상황 속에서도 흑해 항로를 통한 우크라의 농산물 및 원자재 수출입 통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향후 본격화될 우 전후 재건 화물 물동량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적 포석임
- 세계 최대 선사의 자본 유입을 통해 대외 신인도를 높이고, 파괴된 항만 인프라의 현대화 및 물류 처리 역량 회복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 Dragon Capital, 우크라 보험사 VUSO 인수 추진(6.5)

- 우크라 투자회사 드래곤캐피탈이 비생명보험사 VUSO 인수를 추진 중이며, 거래 규모는 25백만~35백만 달러로 추정됨
- VUSO는 자동차·의료·재산 분야의 주요 보험사로, 2026년 1분기 순이익 기준 업계 2위를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실적과 전국적 영업망을 보유
- 이번 거래는 최근 PZU의 MetLife 우크라이나 사업 인수에 이어 진행되는 대형 보험업 M&A로, 우크라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 회복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됨

○ 키이우주 식품가공 특화 산업단지 조성 추진(6.8)

- 우 내각은 키이우주 Bila Tserkva 지역에 위치한 테레진(Terezine) 산업단지를 공식 등록했으며, 식품 및 음료 생산 중심의 가공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
- 총 면적 15헥타르 이상 규모의 산업단지에는 식품·음료 제조업을 우선 유치할 예정이며,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총 780백만 흐리우나 투자 유치를 추진할 계획
- 한편 우크라 반독점위원회는 Amber Dragon Ukraine Infrastructure Fund I의 키이우주 소재 E40 산업단지 및 보리스필(Boryspil) 산업단지 인수를 승인
- 해당 산업단지들은 기존에 Dragon Capital이 독자적으로 개발해 왔으며, 앞으로는 Dragon Capital과 영국계 투자그룹 Amber가 공동 설립한 인프라 펀드가 운영을 담당할 예정
- 보리스필 산업단지는 현재 산업단지 지정 절차를 진행 중이고, E40 산업단지는 2021년 등록된 약 20만m² 규모의 산업단지임

○ ONUR, 우크라 주요 고속도로 건설 재개, 수십억 흐리우나 규모 인프라 투자 본격화(6.8)

- 터키계 건설사 Onur Group이 M-06(키이우 - 초프) 고속도로의 지토미르 (Zhytomyr) 북부 우회도로 미완공 구간 공사를 재개
- 해당 구간은 당초 중국 국영 건설사 Sinohydro Corporation이 수행할 예정이었으나 완공되지 못했으며, 총 129~151km 구간 재건 사업은 3단계로 진행됨
- 사업비는 1단계 313백만 UAH(약 106.2억원), 2단계 548백만 UAH(약 186억원), 3단계 1,420백만 UAH(약 482억원) 규모로 책정
- 우크라 도로 건설사 Avtomagistral-Pivden도 드니프로-돈바스 운하와 폴타바를 연결하는 H-31 고속도로 미완공 구간 공사를 재개
- H-31 고속도로는 2022년 드니프로~드니프로-돈바스 운하 구간이 개통되었으나, 전쟁 발발 이후 2단계 공사가 중단된 바 있으며, 2020년 체결된 원계약 규모는 106억 UAH(약 3,593억원), 2026년 사업 예산은 73.7억 UAH(약 2,498억원)로 추산됨
- 또한 우 정부는 지방도로 긴급 보수 사업을 위해 국가 예비예산에서 35억 흐리우나를 추가 배정했으며, 지방정부와 공동 재원을 활용해 지역 교통망 복구를 추진할 계획임

○ Agroprodservice, 우 서부에 36백만 달러 규모 사료공장 건설 투자(6.8)

- 우크라 농업기업 Agroprodservice가 테르노필(Ternopil) 오스트리우 (Ostriv) 소재 Western Ukrainian Industrial Hub에 신규 사료공장 및 곡물 저장단지 건설을 시작
- 총 투자 규모는 약 36백만 달러이며, 연간 40만 톤 규모의 배합사료 생산능력을 갖춘 시설로 조성될 예정, 2027년 가동 개시 목표
- 신규 시설은 산업단지 내 약 5헥타르 부지에 들어서며, 현재 부지 조성 및 토목공사가 착수된 상태임, 해당 산업단지는 기존 10.6헥타르 부지가 모두 분양됨에 따라 2025년 말 55헥타르 규모로 확장
- 산업단지 측은 공장 운영에 필요한 추가 전력 10MW 확보를 위해 국가 인프라 공동투자 지원도 추진 중

□ 주요 프로젝트 동향

① 폴란드 투자개발형 및 타당성 조사 사업

① 석화(PDH/PP) 플랜트 건설 운영사업

< 사업 개요 >

- (사 업 주) Grupa Azoty, Orlen, 현대엔지니어링, KIND
- (사 업 비) 1,840백만불
- (사업내용) 폴리프로필렌 연간 40만톤 생산
- (추진현황) '19. 4월 KIND 참여의향서 제출
'20. 10월 금융종결
'25. 8월 발주처, EPC 관련 보증 회수(Bond Call)
'25. 10월 Orlen, Grupa Azoty에 250백만불 규모 투자안 제안
'25. 11월 현지SPC, 폴란드 법원에 구조조정 및 파산 신청
'26. 3월 현지SPC-현엔-카인드 구조조정(안) 관련 합의 완료

- (주요동향) '26.3.30 폴란드 법원에 구조조정 및 회생안 제출하였으며,
'26년 상반기 중 폴란드 법원의 심의 결과 도출 예정

② Ursus 열병합 발전소 건설 운영사업

< 사업 개요 >

- (사 업 주) KIND, 남동발전, 베올리아, BHI
- (사 업 비) USD 453백만
- (사업기간) 2026.2.~2054.12. (건설 38개월, 운영 25년)
- (주요내용) 전기 110MWe, 열 90MWt 규모 열병합 발전소 건설 및 운영
- (추진현황) '23. 4월 KIND 사전검토위원회 의결
'24. 1월~7월 타당성조사 용역 실시 (F/S 컨설팅지원)
'25. 10월 타당성조사 재검증 용역 실시 (남동발전)
'25. 12월 KIND 투자심의위원회 및 이사회 의결
'26. 2월 금융종결 및 NTP 발급
'29. 4월 COD

- (주요동향) 주주 간 계약 등 주요 계약서 execution version 도출 협의

③ 폴란드 바르샤바 모듈러 주택 단지 개발사업

< 사업 개요 >

- (사업주) GS건설, Cordia, KIND
- (사업비) PLN 83.34백만
- (사업내용) 총 전용면적 5,296m², 중형(수평분리) 및 대형주택(수직분리) 36세대 건설
- (추진현황) '25. 2월 GS건설-Cordia 공동개발 논의
'25. 3월 GS건설, KIND向 사업참여 요청
'25. 6월 KIND 사전검토위원회 승인
'25. 9월 GS건설-KIND간 공동개발업무협약의향서 체결
'25. 12월 투자심의 승인
'26. 1월 이사회 승인

- (주요동향) '26년 4월 법률자문(현지법인 설립) 시행, 투자계약 체결(KIND→ZEIT)
'26년 5월 이사회 부의(자회사 설립), SPA 체결(KIND→ZEIT)
* 폴란드법 상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제한, 현지법인 설립 또는 인수조치 필요

④ 폴란드 카토비체 물류센터 개발사업

< 사업 개요 >

- (사업주) LX판토스, KIND, PIS펀드
- (사업비) € 129.7백만 (약 2,075억원)
- (사업내용) 총면적 108,977m² 규모 물류센터 5개동(Phase I: DC 1·2동, Phase II: DC 3,4,5동) 건설
- (추진현황) '24. 4월 물류센터 Phase 1 착공(시공사 자체자금으로 진행)
'25. 9월 물류센터 Phase 1 준공 및 운영 시작
'25. 11월 LH 사업 철회 및 KIND 사업 검토
'25. 12월 KIND 투자승인 / Phase 2 건축물 공사 착공
'26. 1월 금융종결
'26. 2분기 물류센터 Phase 2 준공 및 운영시작 예정

- (주요동향) '26.6. Phase II 잔여 부지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임차인 협상

⑤ 폴란드 루블린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 및 통합 관제센터

< 사업 개요 >

- (주관기관) 이에스이(주), (주)아이티코어스, (주)영국씨앤피
- (수원정부) 폴란드 루블린시청
- (사업기간) '26.4.1 ~ '26.12.26.
- (사업예산) 700백만 원
- (사업내용) 스마트시티 개발 전략과 통합 관제센터 구축계획수립 및 예비타당성 조사, 기존 교통관제 고도화 및 실증사업 수행
- (추진현황) '26. 4월 현지 착수보고회 개최 및 현지조사 수행
'26. 7월 중간보고회 개최 예정
'26. 9월 국내 초청 역량강화연수 예정
'26.12월 최종보고회 개최 예정

- (주요동향) '26.4.28. 현지 착수보고회 개최 및 LoI* 체결(KIND-루블린시)
'26.6.2. MoU* 체결(KIND-루블린시)

* 스마트시티 협력 및 루블린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역할과 관계 규정

⑥ 우크라이나 EIPP 전후 재건을 위한 산업전략 10개년 및 3개년 실행 계획 수립 사업

< 사업 개요 >

- (주관기관) 안진회계법인(재무), 현대경제연구원(경제), 스마트도시건축학회(도시)
- (수원정부) 우크라이나 경제농업환경부
- (사업기간) '26.2.13. ~ '26.9.10. (210일)
- (사업예산) 1,241백만원 (재위탁 용역금액 818 백만원)
- (사업내용) 전후 재건을 위한 산업구조를 클러스터 관점에서 기본계획 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실행계획을 수립함
- (추진현황) '26. 4월 착수보고회 개최 완료(온라인, 27일)
'26. 6월 세부실태조사 수행(6. 22.~6. 29.)
'26. 7월 역량강화연수 및 중간보고회 개최 예정(국내)
'26. 9월 최종보고회 개최 예정

- (주요동향) 착수보고회 개최(4.27), 현지조사 및 URC 재건회의 참석(6.24~)

참고

6대 선도 프로젝트 진행현황

프로젝트명	주요내용	담당기관	추진현황 및 계획
키이우 교통 마스터플랜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키이우 지역 공간개발 및 재건 계획 수립, 우선사업 선정 및 pre-FS 등 * '23.12~'24.11 (수행 : 유신 컨소시엄) • (2단계) 교통모델 개발 및 스마트 모빌리티 시스템 기반 교통계획 수립 등 * '24.5~'24.11 (수행 : 한국교통연구원 컨소시엄) 	KIND L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최종보고회 개최 (키이우, '25.4월) • 후속사업(디지털교통 플랫폼 구축) 국토교통 ODA 추진
우만 스마트 시티 마스터플랜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크라 중부도시 우만市에 대해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한 도시개발전략 수립(스마트도시 기반시설 및 솔루션 등) * '23.9~'24.4(수행 : 제일Eng, 수자원공사 등) 	KI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최종보고회 개최 ('24년 4월) • EDCF 사업화 모니터링 (계속)
보리스 필 공항 현대화 등 재건 (추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공항시스템 및 항행안전 시스템 제공 등 현대화사업, 공항 확장·개발 (활주로 등) 사업 및 마스터플랜 수립 등 	한국 공항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화(공항시스템 개선) : '24년 외교부 ODA 선정, PMC 선정 ('24.10월) • 공항MP : 2026 국토교통 ODA 추진중 • 확장FS : 국토부 지원 사업 과업착수('24.12), 최종보고('25.12)
부차시 하수처리 시설재건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키이우지역 부차市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계획 수립 	환경산업 기술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e-F/S 수행결과 최종 평가 완료('26년 1월) * 환경부 F/S 지원사업 • 현지상황 모니터링 후 후속사업 추진여부 결정
댐 재건 및 현대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호우카 댐, 이르핀강 댐 등 재건 기술지원 및 부대시설 설계 등 • 그 외 노후수력 댐 진단 및 현대화 사업 추진 	수자원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 기재부 KSP사업 선정(수자원시설 정책. 기술자문), 용역 발주 예정('26년 3분기)
철도노선 고속화 등 (추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키이우~폴 바르샤바 구간 중 4개 구간 타당성 조사 ①키이우~지토미르~루츠크~국경(약 375km) ②키이우~빈니차~리비우~국경(약 580km) ③키이우~지토미르~리브네~리비우~국경(약 505km) ④키이우~지토미르~루츠크~리비우~국경(약 525km) * 우크라는 철도 운영속도 향상(50→150km/h) 추진 중 	철도공단 (* 운영 등 코레일 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25년 12월) 및 착수 보고회 개최('25.3월) * 외교부 ODA 지원사업 • 중간보고회 개최 예정 ('26.12월)